중국 부가세 개혁의 섬유의류업에 대한 영향
(자료원 : 복장시보)

부가세 개혁은 단순히 기업의 생산 규모 확대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며 설비 갱신과 기술 승급을 촉진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최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2009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부가세 개혁을 실시하고 장차 기업이 새로 구매한 설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세금 공제를 해주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징수율도 3%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 정부가 적시에 부가세 개혁 방안을 내어놓은 것이 여태껏 엄동설한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섬유의류업계를 밖으로 끌어내어 시장의 믿음을 끌어낼 수 있을까?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부가세 개혁의 실제 효과가 어떻든지 간에 내년은 되어야 그 전세가 드러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 책임자들은 이번 신정책이 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를 증대하고 현금유동성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가세 개혁은 장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조에 동참하도록 하여 산업 승급을 이룰 것이다.” 중국섬유산업협회 부회장 쉬원잉(徐文英)은 이것이 산업 구조조정 및 변화를 겪고 있는 섬유의류업계에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큰 호재의 출현

“현재 국제 금융위기의 중국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 배경하에 중국이 이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업 설비 갱신과 기술 승급을 장려하는데 유리하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 쟈캉쩡(贾康曾)은 공개적으로 부가세 개혁이 각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며 고정자산 투자액이 비교적 큰 업계는 장차 세금 감면의 혜택이 클 것이라 하였다.

자료에 따라 중국국제금융유한공사의 2007년 데이터를 기초로 추산해 보면, 부가세 개혁이 33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비교 중 가장 수혜를 받는 10대 업계에서 섬유업계가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 혜택이 78.1억元에 달하며, 그 해 섬유업계 이윤총액의 10.2%를 차지했다. 화학섬유제조업은 13위로 세수 혜택이 14.4억元이고, 의류업계는 21위를 차지하여 세수 혜택이 25.1억元이었다.

업계 인사는 전체 섬유업계로 볼 때, 새로운 세제정책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은 업계는 설비 제조를 위주로 하는 섬유기계기업으로 분석한다. 기자는 이미 적지 않은

섬유기계기업이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세제정책의 혜택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 시장점유율 높일 수 있는지 궁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세제정책의 실시로 업계에 서광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회사 판매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4% 정도로 기대하며, 또 한편으로 회사는 대대적으로 기술 혁신하여 새로운 경쟁 하에 위치를 확고히 다질 것입니다.” 청도섬유기계공장 판매부 부부장 왕하이(王海)는 부가세 개혁이 단순히 기업이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설비 갱신과 기술 향상을 촉진하고 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부가세 개혁은 섬유의류기업의 설비 갱신에 전에 없던 좋은 기회를 가져왔다.” 복건성 봉제설비업계협회 회장 복성공사 이사장 린홍난(林宏楠)은 말했다. “천주의 만개가 넘는 섬유기업 중 아직도 대부분 기업이 수공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단을 재단할 경우, 자동재단기는 5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반면, 전통 수공설비는 50~7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지요. 이 외에 전통 수공설비로 발생하는 오차는 5%의 원가 상승을 가져옵니다.” 그는 천주의 섬유생산기업이 이 기회에 설비 개조를 가속하도록 제안하였다.

호주은령편직의류유한공사 이사장 리한원(李汉文)은 부가세개혁의 전면적 실시는 의류업계에 때맞춰 내리는 단비라고 본다. 그는 부가세 개혁 발표 소식을 알게 된 후 기업이사회의 첫 시간에 내년의 생산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4000만元을 재투자하여 새로운 의류기업을 운영키로 결정했다. 그 중 설비 투자가 약 3000만元 정도이다.

“지금이 바로 섬유의류기업이 적극적으로 산업 승급을 꾀하고 기술 개조를 가속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절강 CATHAYA 부사장 쟝린펑(江临峰)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형 부가세는 기업에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투자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 기술 개조를 장려하고 중국 섬유경제가 경쟁력 없는 방만한 성장에서 과학기술 진보를 통하여 저투입, 저소모, 저배출 및 고효율의 자원절약형 성장 방식으로 변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섬유업계는 애널리스트 왕쳰진(汪前进)은 새로운 세제정책의 효과는 현저하다고 한다. 2008년 섬유업계 고정자산 투자가 10%의 성장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09년 투자도 유사하여 2009년 섬유업계 고정자산 투자는 2800억元이고 그 중 45%의 고정자산투자가 세금감면의 고정자산 범위에 든다. 그렇다면 2009년 섬유업계가 누리는 세금 혜택은 약 161억元 가량이 된다.

평안증권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소비형 부가세의 실시는 단기 기업의 부담을 1200억元 경감하고, 기업의 투자 적극성을 증대하며, 장기적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내수를 진작하고 기업의 기술 혁신과 개조를 촉진하여 산업구조 전환을 완성할 수 있다.

효과는 더 기다려야

"부가세 개혁정책은 신설비 구매, 산업 승급 추진에 유리하나 모든 기업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인사는 이런 관점을 표명했다. 현재의 섬유업계는 막 "동절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어떻게 이 단계를 견뎌낼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소수의 기업만 대거 확장을 고려하고 있고 일부 기업들은 관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가세 개혁의 효과는 단기간에 완전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부가세 개혁이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본다면, 고정투자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자금집약형 기업이 노동집약형 기업보다 수익이 더 많고, 기업의 생산 확장 단계가 생산 안정 단계보다 수익이 더 많다.

"관리와 이익 상황이 좋은 대형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개혁의 실시가 그들 본래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적자이며 시장이 없는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생존이 우선의 문제라 설비 투자를 말할 수 없어 기업 행위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손익분기점의 전망이 좋은 일부 기업만이 감세로 인해 설비 투자를 늘일 수 있습니다." 상기 업계 인사가 말했다.

중화생산자연합회 이사 쉬빙광(徐炳光)은 부가세 개혁의 의의를 충분히 긍정하였다. 기업 설비를 갱신하여 산업 전형과 승급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수익과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기업이 이와 같은 개혁을 하려면 우선 기업 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쉬빙광(徐炳光)은 내륙의 홍콩 사업가들은 오더 감소와 융자난 문제가 완화되어야 투자 확대 등의 진일보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내륙 기업은 중앙의 부가세 개혁에 대하여 긍정적 반응이나 내륙에 공장을 둔 홍콩기업에게는 새로운 방안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이 홍콩 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초상증권의 애널리스트 왕웨이(王薇)는 올해 업계의 형세가 몹시 어렵고 섬유의류기업 또한 대부분 저부가가치 생산형 기업이기 때문에 이 호재는 기본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개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주요 상장기업인 SHANGHAI

METERSBONWE FASHION & ACCESSORIES CO., LTD.는 주가 외주이고, FUJIAN SEPTWOLVES INDUSTRY CO., LTD.는 절반 가량이 외주이고, DALIAN DAYANG TRANDS CO., LTD.와 ZHEJIANG BAOXINIAO GARMENT CO., LTD.는 대규모 확장 계획이 없어 영향이 모두 크지 않다. 하위 업종에서 HENAN REBECCA HAIR PRODUCTS CO., LTD의 화섬원료 항목이 설비 구매와 관련이 있으나 대부분의 설비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미 수입되는 설비는 세제 감면이 가능하여 이 정책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ZHEJIANG WEIXING INDUSTRIAL DEVELOPMENT CO., LTD. 는 2009년 일부 지퍼 항목의 투자가 있어 다소 호재가 된다.

강소의 한 대형 홍콩자본 섬유기업 책임자도 향후 사업 전망이 우려되어 적지 않은 프로젝트와 투자가 잠시 보류될 것이라 한다. 현재와 같이 설비 구매의 부적절한 시기에 설령 설비 구입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 해도 여전히 시기를 기다려 투자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의 부담이 비교적 커,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린홍난(林宏楠)도 이렇게 말했으나 그는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다. “새 정책은 기업을 위해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으며 산업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가세 개혁의 이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저항능력도 커집니다.”

새로운 세제정책이 섬유의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간에 현재는 명확한 정론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기술 혁신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술 진보를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은, 이미 섬유의류업계가 새로운 경제환경하에서 가야 할 중요한 발전 과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문의 여지없이 새로운 세제정책 실시는 산업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YOUNGOR 이사장 리루청(李如成)에 의하면, 섬유기업의 국제 경쟁은 이미 설비 경쟁의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중국 섬유업계는 현재 혹독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기술개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정부가 현재 내수를 확대하여 섬유업계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주혁신의 길을 가야 할 시기이라 하였다.